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집단별 비교 연구*

이 상 철***·박 영 란***

요약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생애과정관점에 따라 중고령자들의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대도시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의 삶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노화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삶의 만족 제고와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영향요인, 즉 개인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의미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과 고령친화환경의 영향력을 상호 검토함으로써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노년기 세대를 대상으로 비례층화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 4,0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집단의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 수준은 낮아지는 반면, 노화불안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집단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개인의 객관적 삶의 조건들의 설명 분산은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연령집단별 영향변수는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노년기 연구에 있어서 생애과정 관점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집단별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분산이 높게 나타난 반면, 노화불안에 대한 설명분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경우 장년층에 비해 설명분산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은 연령집단별 공통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는 반면, 연령집단별 상이한 요인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에 따라 노년기를 보내는 개인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고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삶의 만족, 노화불안, 고령친화환경, 생애과정관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4496).

** 동서대학교 실버복지과 조교수, 제1저자(sclee0902@gmail.com).

***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교신저자(yeongranpark@daum.net).

1. 서론

지난 몇 십년간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는 삶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형석 외, 2003). 특히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되는 성공적인 삶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으로 지각하는가의 여부가 더 큰 관심의 초점과 삶의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각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 가치 기준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으로 삶의 질을 정의하였고(WHO, 1993), Lawton(1991)은 개인 내적인 기준과 사회규범적인 기준 모두에 의한 개인-환경 체계의 다차원적인 평가를 통하여 삶의 질을 정의한 바 있다. 삶의 질을 개념화한 Lawton(1994)은 개인 스스로가 보고하는 지각된 삶의 질 또는 심리적 안녕감의 의미하는 주관적 영역과 제3자가 관찰 가능한 행동요소와 환경요소를 의미하는 객관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의들의 경우 개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경향성을 반영해볼 때 주관적 영역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이형석 외, 2003). 2010년도부터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장년층과 노인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젊은층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체적 능력이 점차 저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주관적 영역에 있어서의 삶의 질은 연령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존재한다(김미령, 2006; 강상경, 2012; 김재희·김옥, 2015). 본 연구에서는 노화과정에서 스스로가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반영하는 삶의 만족과 노화과정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을 반영하는 노화불안을 중심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최근 노년기 정책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고정된 사회적 욕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연령분절모형에서 학습, 일, 여가가 생애전체를 통해 개인의 삶에 통합되는 연령통합모형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정순돌 외, 2015). 고령친화환경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2009년 WHO 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를 구축한 이후,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300여개의 회원도시 및 지역사회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고령친화환경(age-friendly environment)은 연령통합 패러다임에 의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경제적 참여를 적극

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의미한다. 개인의 삶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내에서의 평가적 반응 및 적응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므로, 노화과정에서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인식은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과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노화과정에서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노화과정에서 시민들이 인식하는 고령친화환경과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애과정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의 맥락 및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쳤으며,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부터 민주화 투쟁과 IMF 경제위기 등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변화를 겪어왔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격변기를 몸소 체감한 대표적인 세대이면서 노화과정에 진입한 세대들은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세대이지만, 각 세대별 공유하고 있는 특정 경험들이 다름에 따라 상이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50세-64세)은 현재 노인세대와 달리 높은 교육열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민주화 투쟁과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이전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정경희, 2012, 2014). 또한 65세에서 74세 이하에 해당하는 전기노인 세대의 경우 장년층과 달리 일제식민지시대부터 한국전쟁을 경험하였으며,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라는 가족해체 현상을 경험한 세대이며,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점차 기능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한 삶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 전기노인, 후기노인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은 상이한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삶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상이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과정에 진입하고 있는 장년층, 전기노인, 그리고 후기노인을 동일한 속성을 지닌 인구집단으로 간주한다면 각 연령집단별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들을 간과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장수지, 2010; 임연옥·박재연·윤현숙, 2011).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은 무엇인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장년기와 노년기 세대를 대상으로 비례층화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된 4,000명의 자료를 활용한다.

2. 이론적 배경

1) 생애과정관점에 따른 연령집단별 특징

우리사회를 대상으로 한 노화과정에서의 삶과 심리적 기제 연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점은 생애과정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 따른 연령집단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연구의 적절성 및 현실반영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연령집단은 유사한 삶의 경험을 통해 공동의 의식과 행동양식 및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한국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는 나라로서,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국·유럽과 같은 서양과 일본·중국과 같은 동양의 국가들에 비해 연령집단간 독특한 삶의 경험들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나은영·민경환, 1998; Elder, 1994).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연령집단은 2010년도부터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50세-64세), 노인세대에 진입한 전기노인(65세-74세), 일반적으로 기능취약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 후기노인(75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애과정관점에 따라 상이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연령집단별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은 인구학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산의 시기에 태어나 인구 과밀과 과잉을 경험하며 성장하였고,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에 비해 보다 나은 양육과 체계적 교육을 받았으나 진학 이후 학생수 급증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경험한 세대이다(임연옥·박재연·윤현숙, 2011). 정치적으로는 유신세대로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세대라는 특성이 존재하고, 경제적으로는 현재 노인세대와 달리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1980년 국내 경제 성장의 토대를 이룩하였으나, 1997년 IMF 경제위기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등의 부정적 여파를 강하게 경험하였으며,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하게 되는 ‘샌드위치 세대’로 일컬어졌다(함인희, 2002; 나일주·임찬영·박소화, 2008). 정리하자면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은 노인세대에서 겪었던 절대빈곤이 해소된 세대로서 다양성과 분배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노인세대에 비해 노년기를 자아실현의 기회로 여겨 여가를 중시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며, 가족지향적이면서 탈권위주의 가치관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김영신 외 2004; Sadler, 2000).

노인세대의 경우 근현대사에서 사회·정치·경제적으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일제식민지시대에 아동을 보냈고, 청소년기에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청년기에 4.19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과 월남전 파병 등 혼란한 시기를 보냈으며, 성인기에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경제개발계획으로 농경사회에서 공업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김의철 외, 2000). 그러나 현재의 노인세대는 대부분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강제적 혹은 자발적 이탈로 인해 사회적 역할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역할축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치관에 있어서는 전통지향적 가치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아선호사상, 효와 부양에 대한 인식 등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영신, 1998; 임연옥 외, 2011).

한편 노인세대 중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여유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기능손상 및 만성질환의 정도, 도구적 지지의 활용수준, 배우자 사별 등 심각한 삶의 사건을 경험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으로 인해 전기노인과 구분되는 연령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인정, 1999; 김미령, 2006; 정영해·조유향, 2014).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볼 때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과 현재의 노인세대인 전기 및 후기노인이라는 세 연령집단 간에는 생애과정관점에 따라 심리적·경험적·행동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노화과정은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 정명숙(2005)과 김재희와 김욱(2015)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노화과정에서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

노화과정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상실 및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노화과정에서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 및 삶의 목표달성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고, 지역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적·정서적·경험적 평가를 통한 적응수준 또는 심리적 안정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임영진, 2012). 노화과정에서 삶의 만족이 성공적 노화 달성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노화불안은 노화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신의 노화과정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지적된다(김정희·박지영, 2015; Lynch, 2000). 노화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서 생애주기관점에 따라 각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의 개념과 그 양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은 생활전반에 걸쳐 인식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현재 삶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기초가 된다(Schalock, 1996). 한편 노인세대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인 상태가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의철 외, 2000; 정명숙, 2005). 그러나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장년층과 같은 노인세대와 다른 세대들은 경제적 상태 뿐 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유, 안전에 대한 보장, 쾌적한 환경,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기대가 충족될 때 높은 삶의 만족을 보이는 경향성이 존재한다(OECD, 2001).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과 노인세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노화불안은 노화과정에서 예측될 수 있는 경험이나 예상되는 처우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의미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다(Watkins et al., 1998). 노화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신미·김순이, 2008; Lynch, 2000). 사회적으로 은퇴연령에 진입한 동시에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의 경우 신체적 측면에서 몸의 노화와 성인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관계적 측면에서 마음의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노년기에는 전통적인 노화의 관점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노화에 직면하게 된다(장경은, 2009; 강유진, 2004). 이와 같이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노화과정은 연령집단에 따라 노화불안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재희·김옥, 2015).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노인들에 비해 노화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김옥, 2011; Lynch, 2000). 이는 젊은 세대들이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인들과의 접촉이 부족하고,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시각으로 인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재희·김옥, 2015). 한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다양한 손실과 변화 등과 같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장년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uger, 1994; Barret & Robins, 2008).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장년기는 은퇴직전 또는 은퇴가 시작되는 연령대로서 빈둥지와 같은 위기 사건을 경험하며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존재한다(Lynch, 2000).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자면, 생애과정 관점을 반영하여 우리사회를 바라보았을 때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장년층과 노인세대의 경우 상이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에 있어서도 상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 개념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는 것은 노화과정에 따른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고령친화환경과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과의 관계

연령분절적 패러다임에서 연령통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국제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HO(2007)에서 고령친화도시 및 지역사회(age-friendly city and community) 개념을 제시하고, 2009년도부터 WHO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지은구 등, 2013). 고령친화환경(age-friendly environment)은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가 연령통합 패러다임에 의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경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상철 외, 2011; 김수영·진재문·문경주, 2015; WHO, 2007).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현재는 연구초기단계로서 주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고령친화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지은구 외, 2013; Smith et al., 2013)이다. 구체적으로 Smith et al.(2013)¹⁾은 미국 디트로이트 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혔으며, 지은구 외(2013)²⁾는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 타당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고령친화환경과 시민의 삶의 만족의 관계 탐색(김수영 외, 2015; Lehning et al., 2014)과 관련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Lehning et al.(2014)은 Smith et al.(2013)의 고령친화환경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서비스,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참여가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수영 외(2015)은 고령친화환경 중 물리적 환경과 사회참여 여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경제활동 참여의향 제고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친화환경의 영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관적 건강(Lehning et al., 2014)과 경제활동 참여의향(김수영 외, 2015)과의 관계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및 노화불

1) Smith et al.(2013)은 고령친화환경의 구성개념을 다음과 같이 6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식료품점, 공원, 교통 등 일상생활편의시설 접근성(access to business and leisure), 가족 및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access to health care), 이웃과의 관계 및 갈등 등을 나타내는 지역문제(neighborhood problems), 타인의 도움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지역사회참여(community engagement)

2) 지은구 외(2013)은 고령친화환경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8개 하위요인(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환경, 주거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참여, 사회적 존중 및 포용, 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복지 및 보건)으로 구분하였다

안과 같은 노화과정에서의 적응 및 심리적 기제와 고령친화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 개념에 대하여 연령집단별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정명숙, 2005; 임연옥 외, 2011; 홍금희·하주영, 2015; 정영혜·조유향, 2014), 노화과정에서의 적응 및 심리적 기제를 반영하는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과의 관계와 관련된 논의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고령친화환경과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과의 개념적인 관련성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노화과정에서의 적응 및 심리적 기제는 개인이 속한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태도를 반영한다(임영진 외, 2012). 따라서 노화과정에서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경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친화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태도는 개인의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연령집단별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독특한 삶의 경험들로 인해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의 수준에 대한 심리적·행동적인 면에서 구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에 따라 연령대별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환경 요인구조가 노년기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삶의 만족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 배우자 유무, 종교, 주거유형 등이 보고되고 있다. 성별의 경우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연령대에 따라 성별의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김의철 외, 2000; 박기남, 2004)와 그렇지 않은 연구들(권중돈·조주연, 2000; 정명숙, 2005)도 존재해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수준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홍현방, 2005; 박희봉·이희창, 2005). 경제수준은 삶의 만족 향상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중요한 변수로 논의되고 있으나(정명숙, 2005; 이인정, 2007), 박기남(2004)의 연구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수준이 될 경우 더 이상 행복감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경제수준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보다는 곡선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연가구 소득을 로그화하여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건강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기 삶의 만족에 있어서 건강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춘택·박종우, 1999; 최연희, 2001).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에 배우자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나은영·김혜숙, 1997; 박광희·한혜경, 2002; 김미령, 2008). 노인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주

거유형의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하고(배진희, 2012; 전병주, 2014), 노인 삶의 만족과 종교활동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정유리·이신숙, 2013; 안종철·임왕규, 2014). 노화불안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도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 종교, 주거유형과의 관련성을 다수의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김순이, 2005; 김은하, 2007; 김신미·김순이, 2008; 김순이·이정인, 2007; 김욱, 2010).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서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 배우자 유무, 종교, 주거유형을 연구모형상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2012년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장년층과 노인세대에 해당하는 즉 50세 이상 시민 4,069명을 대상으로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전문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불성실응답을 제외한 4,000명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집방법은 성별·연령·자치구별 비례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2) 측정변수 및 척도

(1)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인 기대 대비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존재한다(George, 1979). 자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연구목적에 따라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와 같은 전반적인 평가를 단일문항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삶의 다차원적인 면을 구체화하여 다문항으로 구성하기도 한다(공수자 외, 2004; 정명숙, 2005).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환경과 관련하여 삶의 다차원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개발을 위해 WHO의 8개 차원별 전문가 총 48명과 일반시민 총 11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와 거동불편 노인 12명과 노인부양가족 70명을 대상으로 총 4회 심층면접

을 실시하여 문항개발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측정은 단일문항 보다는 다차원적인 삶의 측면을 문항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만족 척도를 개발하게 되었다. 삶의 만족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5=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 측정은 대중교통 이용 만족(1문항),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1문항), 가족 및 친구와 지인과의 관계 만족(2문항),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1문항)과 문화생활(여가)에 대한 만족(1문항), 직업 및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2문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품질 수준에 대한 만족(1문항)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에서는 삶의 만족 척도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2)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Lasher & Faulkender(1993)가 개발한 20개 문항, 리커트 5점 척도를 김숙남 외(2008)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네 개의 하위차원 즉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노화불안 척도는 긍정문항 13문항, 부정문항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부정문항의 경우 역문항화 하였다. 문항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화불안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분석모형에서는 노화불안 척도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3)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인식

WHO(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친화환경 체크리스트³⁾를 토대로 시민대상 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 그리고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토과정을 거쳐 총 9개 차원⁴⁾, 48개 문항(5점 척도 :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고령친화환경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Park & Lee(2016)는 우리사회의 고령친화환경의 구성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50세 이상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 전기노인, 후기노인으로 구분한 연령집단별 고령친화환경의 요인구조를 탐색 및 확인하였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의 경우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무질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지역사회

3) WHO(2007)은 고령친화도시 및 지역사회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8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8대 차원은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Outdoor spaces and buildings),교통편의환경(Transportation),주거편의환경(Housing),지역사회활동참여(Social participation),사회적 존중 및 배려(Respect and social inclusion),일자리지원(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의사소통 및 정보제공(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지역복지 및 보건(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이다.

4) WHO(2007)의 8개 차원에 neighborhood problems을 추가하여 9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참여, 녹지공원 및 교통접근성과 같은 4요인 구조로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전기노인의 경우 지역사회 무질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지역사회참여, 녹지공원 접근편의성, 교통접근편의성과 같은 5요인 구조가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경우 지역사회 무질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지역사회참여, 녹지공원 접근편의성, 교통접근편의성, 주거환경편의성과 같은 6요인구조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대별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4)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성별은 준거집단을 남성(0)으로 설정하여 여성(1)과 비교하여 해석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2년제 대학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순위척도(ordinal scale)로 측정하였다. 결혼상태는 준거집단을 배우자 없음(0)으로 설정하여 유배우자(1)와 비교하여 해석하였다. 종교여부에 대해서는 준거집단을 종교없음(0)으로 설정하여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비교하였으며, 주거유형은 준거집단을 전월세가구(0)로 설정하여 자가주택 소유자와 비교해보았다. 소득은 연가구소득을 대상으로 로그화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단일문항 5점척도(1=전혀 건강하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건강하다)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조사대상자 특성과 분석모형의 주요변수들을 대상으로 연령집단별 기술통계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령집단별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고 난 이후, 연령집단별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론단계적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PSS 18.0을 활용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령집단별 조사대상자 특성 및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연령집단별 조사대상자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연령집단별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베이비부머를 포

합하는 장년층은 고졸이상이 81.7%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전기노인은 35.8%, 후기노인은 20.5%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학의 경우 장년층 0.5%에서 전기노인 8.1%, 후기노인 21.4%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결혼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장년층 11.1%, 전기노인 30.8%, 후기노인 53.6%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종교여부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에 있어서는 전월세의 비율이 장년층 24.4%에서 전기노인 31.7%, 후기노인 35.6%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반면, 연평균가구소득은 장년층 4,048만원, 전기노인 2,333만원, 후기노인 1,970만원으로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안정성과 연평균가구소득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평균은 5점 척도상에서 장년층 3.4, 전기노인 3.1, 후기노인 2.9로 점차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집단별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000)

변수	속성	장년층 (N=2343)		전기노인 (N=936)		후기노인 (N=721)	
		N	(%)	N	(%)	N	(%)
성별	남자	1148	(49.0)	456	(48.7)	329	(45.6)
	여자	1195	(51.0)	480	(51.3)	392	(54.4)
교육수준	무학	11	(0.5)	76	(8.1)	154	(21.4)
	초등학교 졸업	107	(4.6)	284	(30.3)	276	(38.3)
	중학교 졸업	311	(13.3)	241	(25.7)	143	(19.8)
	고등학교 졸업	1381	(58.9)	264	(28.2)	103	(14.3)
	대학 (2년제) 졸업	178	(7.6)	16	(1.7)	15	(2.1)
	대학교 (4년제) 졸업	338	(14.4)	51	(5.4)	29	(4.0)
	대학원 이상	17	(0.7)	4	(0.4)	1	(0.1)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260	(11.1)	288	(30.8)	386	(53.6)
	배우자 있음	2079	(88.9)	647	(69.2)	334	(46.4)
종교여부	종교 없음	1093	(46.6)	392	(41.9)	289	(40.1)
	종교 있음	1250	(53.4)	544	(58.1)	432	(59.9)
주거유형	전세·월세	572	(24.4)	297	(31.7)	257	(35.6)
	자가	1771	(75.6)	639	(68.3)	464	(64.4)
경제수준	연가구소득(Mean, SD)	4048.7	(1992.75)	2333.2	(1554.16)	1970.5	(1562.55)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Mean, SD)	3.4	(.728)	3.1	(.831)	2.9	(.890)

연령집단별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삶의 만족 평균은 세 연령집단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모든 연령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화불안의 평균은 세 연령집단 모두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노화불안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결과 장년층과 전기노인, 장년층과 후기노인과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고령친화환경의 요인구조에 대한 기술통계치 결과를 연령집단내와 연령집단 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장년층의 경우 고령친화환경은 녹지공원 및 교통 접근성(평균 3.69), 지역사회 무질서(평균 3.61),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평균 3.51), 지역사회참여 환경(평균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의 경우 교통접근편의성(평균 3.69), 녹지공원 접근편의성(평균 3.62), 지역사회 무질서(평균 3.61),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평균 3.54), 지역사회참여 환경(평균 2.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기노인의 경우 지역사회 무질서(평균 3.67), 녹지공원 접근 편의성(평균 3.62), 교통접근 편의성(평균 3.59),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평균 3.35), 주거환경 편의성(평균 3.16), 지역사회참여 환경(평균 2.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연령집단 간 기술통계치는 지역사회 무질서의 경우 후기노인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은 전기노인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후기노인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 환경에 있어서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이 보통으로 나타난 반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은 보통이하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사회참여 환경의 평균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공원과 교통 접근 편의성의 경우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장년층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친화환경과 관련한 기술통계치 결과를 정리하자면 녹지공원 또는 교통 접근성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사회의 안정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참여 환경 평균은 각 연령집단내와 연령집단 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 연령집단별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구분	변수 및 요인	장년층 (N=2343)		전기노인 (N=936)		후기노인 (N=721)	
		Mean	(SD)	Mean	(SD)	Mean	(SD)
삶의 만족 및 노화불안	삶의 만족	3.35	(.43)	3.25	(.48)	3.14	(.48)
	노화불안	2.91	(.34)	2.95	(.37)	2.97	(.36)
고령친화환경 요인구조	지역사회 무질서	3.61	(.73)	3.61	(.71)	3.67	(.75)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3.51	(.50)	3.54	(.52)	3.35	(.52)
	지역사회참여 환경	3.06	(.48)	2.98	(.48)	2.89	(.52)
	녹지공원 및 교통 접근성	3.69	(.44)				
	녹지공원 접근편의성			3.62	(.54)	3.62	(.54)
	교통접근편의성			3.69	(.51)	3.59	(.53)
	주거환경편의성					3.16	(.79)

2)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이론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이론단계적 회귀모형은 모형1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수 즉 통제변수로 구성된 모형이며, 모형2는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하여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추가된 모형이다. 각 연령집단별로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증분타당도(Incremental validity) 검증은 ΔR^2 에 따른 F검증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모형1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영향력은 모형2의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의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이론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하여 통제변수 및 고령친화환경 요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의 값이 각각 0.1 이하, 10 이상으로 나타난 통계치는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총 설명분산은 52.8%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증분설명량은 24.6%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1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일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월세에 비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연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를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령친화환경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지역사회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지역사회참여 그리고 녹지공원 및 교통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총 설명분산은 6.1%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증분설명량은 1.4%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1을 중심으로 노화불안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월세에 비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를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고령친화환경 요인들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주거유형과 주관적 건강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환경 요인 중에는 지역사회 무질서와 지역사회참여로 나타났다.

[표 3]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이론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 장년층

모형	변수	삶의 만족(N=2,338)				노화불안(N=2,338)			
		b	S.E	Tolerance	VIF	b	S.E	Tolerance	VIF
모형1	상수	.358*	.181			3.754**	.166		
	여성(준거집단=남성)	.033*	.016	.905	1.106	.007	.015	.905	1.106
	교육수준	.029**	.008	.862	1.159	-.013	.007	.862	1.159
	유배우자(준거집단=배우자없음)	-.011	.026	.870	1.150	-.011	.024	.870	1.150
	종교있음(준거집단=무교)	.016	.015	.956	1.046	-.027	.014	.956	1.046
	자가주택(준거집단=전월세)	.104**	.019	.890	1.124	-.054**	.017	.890	1.124
	연평균가구소득(로그화)	.188**	.017	.757	1.321	-.024	.016	.757	1.321
	주관적 건강	.229**	.011	.951	1.052	-.078**	.010	.951	1.052
모형2	상수	-.782**	.155			3.974**	.174		
	여성(준거집단=남성)	.024	.013	.901	1.110	.010	.015	.901	1.110
	교육수준	.029**	.007	.850	1.176	-.010	.007	.850	1.176
	유배우자(준거집단=배우자없음)	.020	.021	.864	1.157	-.011	.024	.864	1.157
	종교있음(준거집단=무교)	.028*	.013	.956	1.046	-.030*	.014	.956	1.046

모형	변수	삶의 만족(N=2,338)				노화불안(N=2,338)			
		b	S.E	Tolerance	VIF	b	S.E	Tolerance	VIF
	자가지택(준거집단=전월세)	.078**	.015	.886	1.129	-.050**	.017	.886	1.129
	연평균가구소득(로그화)	.141**	.014	.749	1.335	-.016	.016	.749	1.335
	주관적 건강	.171**	.009	.916	1.092	-.068**	.010	.916	1.092
	F1. 지역사회 무질서	-.027**	.009	.799	1.252	.027**	.010	.799	1.252
	F2.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258**	.015	.635	1.575	-.014	.017	.635	1.575
	F3. 지역사회참여	.251**	.015	.765	1.307	-.074**	.016	.765	1.307
	F4. 녹지공원 및 교통 접근성	.062**	.017	.654	1.528	.003	.019	.654	1.528
종합 효과	모형1	$F_{(8,2329)} = 114.513^{**}$ $R^2 = .282$				$F_{(8,2329)} = 14.352^{**}$ $R^2 = .047$			
	모형2	$F_{(4,2325)} = 302.952^{**}$ $\Delta R^2 = .246$ $R^2 = .528$				$F_{(4,2325)} = 8.954^{**}$ $\Delta R^2 = .014$ $R^2 = .061$			

*p<.05, **p<.01

전기노인의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이론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다중공선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전기노인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총 설명분산은 63.6%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증분설명량은 24.6%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1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일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월세에 비해 자가지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연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를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고령친화환경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지역사회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지역사회참여 그리고 녹지공원 접근 편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향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총 설명분산은 9.2%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증분설명량은 1.8%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1을 중심으로 노화불안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에 부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를 중심으로 인

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령친화환경 요인들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역 사회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환경 요인 중에는 지역사회 무질서와 지역사회참여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이론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전기노인

모형	변수	삶의 만족(N=935)				노화불안(N=935)			
		b	S.E	Tolerance	VIF	b	S.E	Tolerance	VIF
모형1	상수	.346	.367			3.764**	.348		
	여성(준거집단=남성)	.084**	.027	.846	1.182	-.020	.025	.846	1.182
	교육수준	.049**	.011	.819	1.220	-.034**	.010	.819	1.220
	유배우자(준거집단=배우자없음)	.057	.030	.824	1.214	-.002	.028	.824	1.214
	종교있음(준거집단=무교)	.038	.026	.951	1.051	-.009	.024	.951	1.051
	자가주택(준거집단=전월세)	.154**	.029	.815	1.227	-.050	.028	.815	1.227
	연평균가구소득(로그화)	.122**	.020	.771	1.297	-.006	.019	.771	1.297
	주관적 건강	.262**	.015	.926	1.080	-.092**	.015	.926	1.080
모형2	상수	-1.164**	.292			3.950**	.355		
	여성(준거집단=남성)	.066**	.021	.841	1.189	-.013	.025	.841	1.189
	교육수준	.032**	.009	.797	1.255	-.028**	.010	.797	1.255
	유배우자(준거집단=배우자없음)	.049*	.023	.822	1.216	.004	.028	.822	1.216
	종교있음(준거집단=무교)	.024	.020	.939	1.065	-.010	.024	.939	1.065
	자가주택(준거집단=전월세)	.106**	.023	.806	1.240	-.043	.028	.806	1.240
	연평균가구소득(로그화)	.117**	.016	.759	1.317	-.001	.019	.759	1.317
	주관적 건강	.202**	.012	.880	1.137	-.083**	.015	.880	1.137
	F1. 지역사회 무질서	-.033*	.014	.897	1.115	.036*	.017	.897	1.115
	F2.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282**	.022	.675	1.483	.029	.027	.675	1.483
	F3. 지역사회참여	.262**	.022	.787	1.270	-.086**	.027	.787	1.270
	F4. 녹지공원 접근편의성	.092**	.021	.717	1.395	-.031	.025	.717	1.395
	F5. 교통접근편의성	.003	.022	.724	1.382	-.008	.027	.724	1.382

모형	변수	삶의 만족(N=935)				노화불안(N=935)			
		b	S.E	Tolerance	VIF	b	S.E	Tolerance	VIF
모형 효과	모형1	$F_{(8,926)} = 74.020^{**}$ $R^2 = .390$				$F_{(8,926)} = 9.174^{**}$ $R^2 = .073$			
	모형2	$F_{(5,921)} = 124.574^{**}$ $\Delta R^2 = .246$ $R^2 = .636$				$F_{(5,921)} = 3.693^{**}$ $\Delta R^2 = .018$ $R^2 = .092$			

*p<.05, **p<.01

후기노인의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이론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다중공선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후기노인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총 설명 분산은 62.6%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증분 설명량은 22.0%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1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월세에 비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연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를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고령친화환경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지역사회참여 그리고 녹지공원 및 교통 접근 편의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주거환경편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향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총 설명분산은 12.5%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증분설명량은 4.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1을 중심으로 노화불안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월세에 비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를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고령친화환경 요인들과 노화불안과의 관계는 녹지공원 접근편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자가주택 소유와 주관적 건강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환경 요인 중에는 녹지공원 접근편의성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에 대한 이론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후기노인

모형	변수	삶의 만족(N=720)				노화불안(N=720)			
		b	S.E	Tolerance	VIF	b	S.E	Tolerance	VIF
모형1	상수	1.077**	.361			3.902**	.342		
	여성(준거집단=남성)	.033	.033	.724	1.382	.007	.031	.724	1.382
	교육수준	.022	.011	.794	1.260	-.012	.011	.794	1.260
	유배우자(준거집단=배우자없음)	-.036	.033	.749	1.335	.034	.031	.749	1.335
	종교있음(준거집단=무교)	.052	.029	.921	1.086	-.032	.028	.921	1.086
	자가주택(준거집단=전월세)	.171**	.032	.802	1.247	-.061*	.030	.802	1.247
	연평균가구소득(로그화)	.111**	.020	.817	1.223	-.036	.019	.817	1.223
	주관적 건강	.282**	.016	.938	1.066	-.091**	.015	.938	1.066
모형2	상수	.041	.308			4.188**	.359		
	여성(준거집단=남성)	.032	.026	.714	1.401	.004	.031	.714	1.401
	교육수준	.017	.009	.762	1.313	-.008	.011	.762	1.313
	유배우자(준거집단=배우자없음)	-.012	.026	.738	1.356	.024	.030	.738	1.356
	종교있음(준거집단=무교)	.015	.024	.897	1.115	-.018	.028	.897	1.115
	자가주택(준거집단=전월세)	.125**	.026	.773	1.294	-.044	.030	.773	1.294
	연평균가구소득(로그화)	.079**	.016	.791	1.264	-.023	.018	.791	1.264
	주관적 건강	.219**	.013	.857	1.167	-.078**	.015	.857	1.167
	F1. 지역사회 무질서	-.011	.016	.818	1.223	.017	.019	.818	1.223
	F2.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216**	.027	.625	1.600	-.012	.031	.625	1.600
	F3. 지역사회참여	.200**	.026	.672	1.487	-.036	.030	.672	1.487
	F4. 녹지공원 접근편의성	.072**	.025	.694	1.442	-.088**	.029	.694	1.442
	F5. 교통접근편의성	.097**	.024	.713	1.402	-.051	.028	.713	1.402
	F6. 주거환경편의성	.058**	.015	.897	1.115	.018	.017	.897	1.115
모형 효과	모형1	$F_{(8,711)} = 62.603^{**}$ $R^2 = .413$				$F_{(8,711)} = 7.582^{**}$ $R^2 = .079$			
	모형2	$F_{(6,705)} = 70.292^{**}$ $\Delta R^2 = .220$ $R^2 = .626$				$F_{(6,705)} = 6.263^{**}$ $\Delta R^2 = .047$ $R^2 = .125$			

*p<.05, **p<.01

5.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하여 연령집단별로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삶의 만족 향상 및 노화불안 감소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본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 평균은 세 연령집단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집단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장년층 또는 베이비부머와 노인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며(정순돌, 성민현, 2012; 임연옥 외, 2011), 타연령대와 비교해보았을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나 추후에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김재희, 김욱, 2015; 정명숙, 2005; 김의철 등, 2000). 한편 노화불안의 평균은 세 연령집단 모두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고, 장년층과 전기노인, 장년층과 후기노인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집단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40대, 50대, 60대 연령집단간 노화불안의 수준이 차이가 별로 없거나(김신미, 김순이, 2008; 김순이, 이정인, 2007), 40대와 50대에 비해 60대의 노화불안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은하, 2007).

둘째, 삶의 만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설명력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은 28.2%, 전기노인은 39.0%, 후기노인은 41.3%로 나타나 연령증가에 따라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존재로서 장년층과 노인세대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같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이 점차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수들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객관적 삶의 조건으로서 공통적으로 전월세에 비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연평균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후기노인과 달리 장년층 및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여성이며,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삶의 만족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후기노인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타 연령대와 비교해보았을 때 성별, 주거유형, 연평균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명숙(2005) 등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서 향후 이에 대한 지속

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노화불안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설명분산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 4.7%, 전기노인 7.3%, 후기노인 7.9%로서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즉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이 노화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주관적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년층과 후기노인의 경우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변수로 전월세에 비해 자가주택 소유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집단별로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기여하는 바를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연령집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증진 정책 및 서비스가 중고령자들의 생활환경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증분설명량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 24.6%, 전기노인 24.6%, 후기노인 22.0%로 대체적으로 높은 설명 분산을 나타냈다. 한편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장년층과 전기노인의 삶의 만족 향상을 설명하는 분산의 경향성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삶의 만족 향상에 공통적으로 기여하는 고령친화환경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지역사회 참여, 녹지공원 접근 편의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연령집단별 특성으로는 교통 접근 편의성은 전기노인을 제외한 장년층과 후기노인에서, 지역사회 무질서는 후기노인을 제외한 장년층과 전기노인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주택환경 편의성이 삶의 만족 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지역사회참여, 녹지공원 접근 편의성을 강화해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함께 연령집단별로는 차별적인 정책적인 노력 즉, 장년층과 후기노인에 초점을 둔 교통접근편의성 제고, 장년층과 전기노인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무질서 완화 및 감소 노력, 후기노인의 경우 기능적 취약성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택환경 편의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연령집단별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증분 설명량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장년층 1.4%, 전기노인 1.8%, 후기노인 4.7%로서 삶의 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동기위생이론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삶의 만족 향상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반면, 노화불안 감소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 향상과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역동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고령친화환경의 증분 설명량이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결과는 후기노인에게 있어서 고령친화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은 연령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장년층과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이 낮고, 지역사회참여 수준이 높을 경우 노화불안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후기노인의 경우 녹지공원 접근편의성이 강화될 경우 노화불안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화불안 수준 감소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연령집단별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섯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노년기 시민들의 삶의 만족 향상과 노화불안 감소를 위해서는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은 양 극단의 일차원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상호 변별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김재희, 김욱, 2015). 만약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이 양 극단의 일차원상의 개념이라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의 영향력의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 향상과 노화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인구사회적 변수들과 고령친화환경 내용요인구조는 차별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이 다차원적인 속성을 갖는 개념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노년기 개인의 삶의 만족 향상과 노화불안 감소를 위한 다각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WHO 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2013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회원도시로 가입하였고 최근 정읍시, 부산시, 제주도, 인천시 등 지방정부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공식화하거나 현재 준비 중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별로 한정된 자원(시간, 인력과 예산 등)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고령친화환경 조성 및 운영 전략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무질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지역사회참여, 녹지공원 접근 편의성 및 교통 접근 편의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

력은 연령 집단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고령친화환경을 생애주기관점에 따라 구분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을 위해 고령자의 건강 생활 보장, 사회참여 기회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여건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들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중장년을 위한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대도시 거주 장년층은 질서있는 생활환경과 지역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질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녹지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고, 후기 노인의 경우에는 녹지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민의 삶의 만족 향상과 노화불안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과 시민의 삶의 객관적 조건들의 영향력을 생애과정 관점에서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화과정에서 지각하는 주관적 삶의 질을 삶의 만족과 노화불안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편 Lawton(199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삶의 질은 객관적 및 주관적 영역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령친화환경 요인들이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고령친화환경의 이론적 위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세계보건기구는 고령친화환경 조성의 목적을 시민들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WHO, 200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활동적 노화의 세 영역 즉 건강, 참여, 안전의 영역에서 노인들이 지각한 고령친화환경의 구성개념의 영향력을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활동적 노화에 기여하는 고령친화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강상경(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91-119.
- 강유진(2004). 중년후기 한국 여성의 노년기 전환기 경험. *대한가정학회지*. 42(7), 145-164.
-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2004).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건강*. 9(3), 243-263.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2000). 세대갈등과 사회질서: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6(1), 181-204.
- 김미령(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수영, 진재문, 문경주(2015).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삶의 조건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1-24.
- 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희(2008). 노화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92-301.
- 김순이(2005). 일부지역 노인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7-15.
- 김순이, 이정인(2007).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4(1), 103-109.
- 김신미, 김순이(2008).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81-291.
- 김영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영신, 서정희, 송인숙, 이은희, 재미경(2004). 새로 쓰는 소비자과 시장환경. 시그마프레스.
- 김욱(2010).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7, 71-94.
- _____ (2011).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27-56.
- 김은하(2007). 중년이후 여성의 노화에 대한 불안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2), 192-202.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발달*. 5(1), 119-145.
- 김재희, 김욱(2015). 노화불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년, 중년, 노년 집단 비교. *노인복지연구*. 68, 187-216.
- 김정희, 박지영(2015).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10-222.
- 김춘택, 박중우(1999). 대구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9(3), 21-33.
- 나은영, 김혜숙(1997).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1). 3-17.

- 나은영, 민경환(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4(1). 75-93.
- 나일주, 임찬영, 박소화(2008). 한국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방향: 국가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노인복지연구*. 42. 151-174.
- 박광희, 한혜경(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43-61.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 박희봉, 이희창(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배진희(2012). 주거 관련 요인이 농촌 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2. 1-25.
- 안종철, 임왕규(2014).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189-210.
- 이상철, 장인복, 오지선, 신주연, 김에나(2011).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건강, 삶의 만족에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3). 35-50.
- 이형석, 김도관, 고혜정, 구형모, 권의정, 김지혜(2003). 노인 삶의 질 척도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59-881.
- 임연옥, 박재연, 윤현숙(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부모 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3. 7-44.
- 임영진(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1(3). 877-896.
- 장경은(2009).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355-380.
- 장수지(2010).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전후기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5-100.
- 전병주(2014). 여성 노인의 거주형태에 따른 우울, 삶의 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과학연구*. 30(2). 189-212.
- 정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생활 전망. *보건복지포럼*. 5. 40-49.
- _____ (2014). 노인의 특성변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0. 7-17.
- 정명숙(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8(4). 87-108.
- 정순돌, 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정영해, 조유향(2014). 한국 전·후기 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과 성별차이.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39(3), 176-186.

정유리, 이신숙(2013). 노년기 여가활동 활성화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노년기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2), 49-63.

지은구, 이원주, 김민주(2013).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 개발연구. *사회과학연구*, 29(3), 459-489.

최연희(2001). 미국 한인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삶의 만족. *한국노년학*, 21(1), 183-194.

함인희(2002).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파주: 나남출판.

홍금희, 하주영(2015). 중년 전·후기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요소 및 노후준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1), 29-39.

홍현방(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Barrett, E. & Robbins, C. (2008). The multiple sources of women's aging anxiet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0(1), 32-65.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Elder, H. Jr.(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4-15.

George, K.(1979). The happiness syndrom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in the study of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The Gerontologist*, 19, 210-216.

Lasher, P. & Faulkender, J.(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Layard, R. (2006).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Lawton, P. (1991). A multidimensional view of quality of life. In E. Birren, E. Lubben, C. Rowe & E. Deutchman(eds).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frail elderly*. New York: Academic Press.

_____ (1994). Quality of life in Alzheimer disease. *Alzheimer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 8(3), 138-150.

Lehning, J., Smith, J. & Dunkle, E. (2014). Age-friendly environments and self-rated health: An exploration of Detroit elders. *Research on Aging*, 36(1), 72-94.

Lucas, R.,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Lynch, M.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France: OECD.

Park, J. & Lee, C. (in press). Age-friendly environm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South Korea elders: Person-environment fit perspective. *Aging and Mental Health*.

- Sadler, W. (2000). *The third age: Six principles of growth and renewal after forty*. Sadler Perseus Books.
- Schalock, R. (1996). *Quality of life*. New York: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Smith, J., Lehning, J. & Dunkle, E. (2013). Conceptualizing age-friendly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a sample of urban elder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6*(2), 90-111.
- Watkins, E., Coates, R. & Ferroni, P. (1998).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in an elderly Australi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4), 319-332.
- WHO. (1993).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study protocol. WHO(MNH/PSF/93.9).
- _____(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Abstract ▶

The Effects of Age-friendly Environment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Aging Anxiety: An Analysis by Age-Cohort Groups

Lee, Sang-Chul*·Park, Yeong-Ran**

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First, this study examines subjective well-being among elders that operationalize life satisfaction and aging anxiety, guided by life-course perspective. Second,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age-friendly environment factor structure among age-cohort groups. This study employs the stratified sampling method from 4,000 Seoul citizens. Main findings from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include: (1) as age increases, aging anxiety levels appeared to be higher, while decreasing the life satisfaction, (2) a substantially larger variance of life satisfaction and aging anxiety was accounted for by demographic variables and age-friendly environments across age-cohort groups. (3) the influence of age-friendly environment factors such as neighborhood problems, accessibility to social activities, social services and parks on subjective well-being was different across age-cohort groups. This study discusses th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Key Words: life satisfaction, aging anxiety, age-friendly environment, life-course perspective.

◆ 2016.04.30. 접수 / 2016.06.03. 1차수정 / 2016.06.13. 게재확정

* First Author, Department of Silver Welfare, Dongseoul University(sclee0902@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Silver Industry, Kangnam University(yeongranpark@daum.net)